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9

- 중어중문학, 인류학, 조선해양공학, 교육학, 불어교육, 법학 -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 9

- 중어중문학, 인류학, 조선해양공학, 교육학, 불어교육, 법학 -

2024년 12월 25일 초판 제1쇄 인쇄

2024년 12월 30일 초판 제1쇄 발행

엮은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

발행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발행인 김하석

전화 02-880-9019

인쇄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전화 02-889-0727, 880-5220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24

엮은이와 협의하여 인지는 생략합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무단 전재와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아울러 이 책에 실린 글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ISBN 978-89-961213-9-8 03810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나의 학문, 나의 삶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 엮음

허성도(중어중문학)

전경수(인류학)

장창두(조선해양공학)

윤정일(교육학)

이형식(불어교육)

양창수(법학)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발간사

평생을 학문 연구와 인재 양성에 진력하여 학문의 지표가 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나의 학문, 나의 삶』이 2020년 10월에 제1권이 발간된 이래 서울대학교와 학계 그리고 사회 각 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나의 학문, 나의 삶』 제9권이 발간되었습니다. 책자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귀한 시간을 내셔서 주옥같은 원고를 집필해 주신 허성도(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전경수(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장창두(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윤정일(사범대학 교육학과), 이형식(사범대학 불어교육과), 양창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발간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본 협의회와 사회봉사위원회 최종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에서는 명예교수님들의 연구와 저술 등의 활동을 통해 축적된 지적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학문, 나의 삶』 발간 사업도 지적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서울대학교의 연구 Archives로서의 더 큰 의미도 있습니다.

대학교의 기록관(Archives)은 전 세계 유수의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대표적인 기록관으로는 옥스퍼드대학은 1634년(수집은 13세기 초부터), 케임브리지대학은 15세기 초, 하버드대학은 1851년, UC버클리는 1906년, UCLA는 1950년대 중반에 설립] 대학의 역사와 행정, 학사 연구 등 대학의 공식적인 자료의 수집, 보관 및 연구자료 제공 등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요즘은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도 병행하여 일부 자료의 온라인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늦었지만 2001년에 서울대학교 기록관이 설립되어 주로 옛날 사료와 행정기록, 사진, 희귀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소장품 중에는 교수의 연구업적과 수상 실적, 석·박사 학위논문 등도 보관되고 있어서, 명예교수가 집필한 연구부문 자서전 격인 『나의 학문, 나의 삶』도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일부분으로 대학의 Archive로의 역할이 크고 따라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대학본부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번 제9권의 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의 발간을 지원해 주신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장학사업에 더 치중하기로 하여 다른 지원을 모색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자연과학대학의 생명과학과 김선영 명예교수님께서 발간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평생 한 분야에 몰두하신 석학들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현재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방안을 모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학문, 나의 삶』 발간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서울

대학교의 학문별 역사 자료가 집대성되고, 석학들의 정신과 전통이 후학들에게는 학문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이사장 김하석

책머리에

우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발간하는 〈나의 학문, 나의 삶〉 총서 금년도 제9권에 우리 집필자 6인이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총서는 우리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학문안내서의 역할이 주목적임을 잘 알고 명심하여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의 분야 즉 학자의 길이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특수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되도록 쉽게 안내서 역할을 하도록 설명하려는 뜻도 명심하였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은 각자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 사회에서 누구 못지않게 받은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사회에 되도록 돌려주고 봉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공지식을 요청하는 데로 가서 직접 재능기부의 형태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학문은 전통학문과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개화기와 일제시기를 거쳐 서구적 현대학문으로 재구성되어 발전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교육을 지향하여 여러 제약조건 속에서도 급증하는 대학과 대학생 수에 맞추어 급성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 한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변화와 정

착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곡절과 혼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배학자들의 결단과 모색의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각 대학들의 학문형성과 그 분포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며 정리하여야 할 것도 학술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학문은 제도적으로만 설명될 수 없이 학자의 개인적 역정(歷程)과 경험을 알아야 설명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학술사(Wissenschaftsgeschichte)는 바로 학자사(Gelehrten-geschichte) 자체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날 한국사회는 급속히 대중사회로 변하여 예컨대 연예인들의 생애에 비하여 학자들의 세계는 무관심의 베일에 가리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나라의 문화국가로서의 수준과 질량에 달려 있겠습니다. 또한 학자의 세계는 냉정한 개인주의적 삶의 세계이기에 더욱 그런 경향이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속얘기’를 털어놓고 서술하려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기획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필자들은 서로 담화하여 집필방향을 토의하거나 약속하지 않았습니니다. 전적으로 각자가 자유롭게 쓰고 싶은 얘기를 썼습니다. 분야가 각각 다르다 보니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어쩌면 서로 서술 스타일이 각각 다르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인이 읽기에는 너무 전문적이고 재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서가 대한민국의 학술사를 축적하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너그럽게 흥미 있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총서를 기획하고 추진하시는 명예교수 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 최종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1일

저자 일동

차례

발간사	4
책머리에	7

허성도 | '맹자와 함께 춤을'

I. 글머리에	17
II. 머뭇거리고 한 줄기 빛	18
III. 우인 조규철 선생님과과의 만남	24
IV. 『맹자』 한 편이 뿌린 씨앗들	36
V. 이어지는 실수, 또 실수	46
VI. '야(也)'가 남겨준 고귀한 선물	63
VII. 14자와 함께 다닌 3개월의 여행	68
VIII. 두 명의 남자와 잠자는 아내	76
IX. '맹자와 함께 춤을'	79

전경수 | 공부는 아무나 하나...

I. 아버지와 선생님	85
II. 학계의 심부름	103
III. 미국유학과 선생님	116
IV. 모교에서 홀로서기	132

장창두 | 세계1위 조선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삶과 학문

I. 머리말	151
II. 성장기	153
1. 우리 집안 내력과 어린 시절	153
2. 초·중·고 시절	154
3. 대학 시절	164
4. 졸업 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근무 시절	171
5. 일본유학시절	185
III. 교수시절	204
1. 서울대 교수 발령	204
2. 학생지도와 바이블 스터디	207
3. 국내외 학술활동 및 교육활동	209
4. 해외 초빙교수 시절	210
5. 세계를 선도하는 탁월한 연구업적 달성과 조선 산업에 적용한 획기적인 성과들	217
6. 세계1위 조선국의 꿈을 이루다	231
7. 천안함, 세월호 침몰 원인 분석 관련 인터뷰 및 방송 출연 유감	233
8. 반세기 만에 한국 최초로 개최한 국제선박해양구조회의(ISSC 2009) 의장 역임	235
9. 스승을 뛰어넘는 출람(出藍)한 제자들 양성	236
IV. 맺는말	237

윤정일 | 한국 교육재정학 확립

I. 교사의 길로 방향 전환: 청주사범학교	243
II. 학문의, 민족의, 세계의 대학: 서울대학교	250
1. 전무후무한 대입제도	250
2. 최선을 다한 대학 4년	252
3. 가정교사 생활과 양우장학금	253

4. 서울대학교 럭비선수	254
III. 호국간성 ROTC 소위 임관	256
1. ROTC 후보생 합격	256
2. 인제군 원통리로 배치	258
3. 양양 오색에 4H 회관 건립	259
4. 보통군법회의 국선 변호인	261
IV. 학문의 길로 진입: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63
1. 교육행정 전공	263
2. 대한교련 입사 시험	265
3. 인천교육대학 통근	266
4. 젊음을 투자한 한국교육개발원(KEDI)	269
V. 꿈에 그리던 미국 유학	273
1. 일리노이 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의 입학허가서	273
2. 시카고 오헤어(O'Hare) 공항에서 친구 찾는 방송	275
3.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277
4. 맞은편 기숙사 불이 다 꺼질 때까지	278
5. Computer Use in Education	279
6. 논문 자격시험	281
7.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283
VI. 한국 교육을 선도하는 KEDI	284
1.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개정	284
2. 교육비 분석 연구	286
3. 7.30 교육개혁과 교육세 도입	288
4. 장기 인력수급 계획 수립	289
VII. 서울대 교수의 긍지와 자부심	291
1. 연구와 저술 활동	292
2. 서울대학교 관련 연구	300
3. 교육연구소와 교육행정연수원	302
4. 교육개혁과 교육재정 확충	305
5. 학회 창립 및 운영	307

6. 대학-지역사회 간의 협력체제 확립	310
7. NGO 활동: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313
VIII. 꿈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전근	315
IX. 맺음말	320

이형식 | 구도의 여정에서 만난 프루스트

I. 슬픈 걱정	323
II. 허무혼(虛無魂)	327
III. 제상비상(諸相非相)	336
IV. 사바나	343
V. 다시 깨진 평온	357
VI. 순례의 길	368
VII. 신화 속으로	376
VIII. 스러지는 몽환경	386

양창수 | 학문으로서의 민법학을 위하여

I. 들어가기 전에	393
II. 법대 학생이 되기까지	396
1. 집안의 내력	396
2.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401
III. 민법학을 전공으로 — 이호정 선생님과 곽윤직 선생님	404
1. 대학원에서	404
2. 이호정 선생님	407
3. 곽윤직 선생님	420
IV. 법원에서, 그리고 독일 유학	421

1. 법원에 있으면서	421
2. 독일 유학	424
V. 학교로 와서	438
1. 1985년 6월	438
2. 박사학위 논문 — 「일반 부당이득법의 연구」	440
3. 법 공부	442
VI. 마치면서	444

‘맹자와 함께 춤을’

허성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



I. 글머리에

이 글은 내가 『맹자』를 공부해 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저지른 수 많은 실수를 기록하여, 앞으로 한학에 입문하려는 후학들에게 내가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보다 효과적인 한학의 길 하나를 소개하려는 것이다.

금년 내 나이 일흔다섯이다. 젊은 시절의 꿈대로라면 지금의 나는 이미 대단한 한학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한문 서적이라도 펴놓으면 주르르 읽어갈 수 있는 그런 한학자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맹자 집주』 한 권을 겨우 읽어내는 서생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나는 한학자가 되려는 꿈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나의 전공 분야는 현대중국어 어법이어서, 많은 시간을 이 분야 연구에 써야 했다. 이것이 한문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객관적이고도 지극히 타당한 이유이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을 한문 공부에 써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왜 목표에 이르지 못했을까? 이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나의 한문 공부 도정을 몇몇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

고 실패한 가운데서도 얻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소득을 적어보기로 한다.

II. 머뭇거림과 한 줄기 빛

1968년 나는 그해에 신설된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에 1기생으로 입학했다. 교양과정부는 모든 신입생에게 1년 동안 교양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 과정을 규정대로 이수한 학생을 소속 학과로 진입시킨다는 목적으로 설치된 일종의 학부였다. 이 시기에 내가 집중했던 강의는 최완식 교수님께서 담당하신 『교양 한문』 강의였다. 선생님께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한문을 하나하나 문법적으로 분석하며 해석해 주셨다. 이 강의를 통하여 나는 한문도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 한문에는 문법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었지만, 이 강의는 이런 통설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런 사실은 실로 소중한 것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한문 공부를 하는 내내 문법을 생각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

두 학기가 지나고 겨울 방학이 되었다. 나는 챙길 것도 없는 짐, 가방 하나를 털렁 들고 자취로 피곤했던 서울을 떠나 향리 대전으로 돌아왔다. 그 당시 나의 아버님께서도 동양철학을 하는 학자들과 교분을 유지하며, 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학산(鶴山) 이정호(李正浩) 교수님께서 주역 강의를 듣고 계셨다. 그러던 중에 그 교수님께서 이번 겨울 방학에는 자기 자제에게

렇게 꿈같은 대학 2학년 시절도 흘러갔다.

III. 우인 조규철 선생님과의 만남

1970년, 3학년이 되었다. 아직 국가 사회의 분위기도 썰렁하고 대학 캠퍼스도 스산하던 5월이었다. 나는 수업을 마치고 맥없이 마로니에 앞 나무 벤치에 앉아있었다. 그때 마침 강의를 마친 이한조 교수님께서 옆에 앉으셨다. 그분은 당시 시간강사로 나오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벤치에 앉아서 쉬다가 돌아가시곤 했다. 나는 1학년 때도 선생님의 중국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서로 낯이 익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분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허 군은 요즈음 어떻게 지내노?”

나는 내심 깜짝 놀랐다. 대학 교수님이 나의 개인사를 물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요즈음의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렸다.

“한문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적당한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바로 말씀하셨다.

“그래? 나도 한문 배우러 다닌다. 나 지금 거기 갈킨데 허 군도 같이 갈래?”

나는 너무나 반갑고 기쁜 나머지 곧바로 그분을 따라나섰

내가 학부생이었던 시절, 그 무거웠던 교수 연구실 문을 내가 교수가 되면 쉽게 열도록 바꾸리라는 꿈을 이루고자 함이었다. 그렇게 열어놓고 보니, 학생들도 쉽게 찾아오지만, 고문서를 파는 서적상 할아버지도 자주 들르시고, '이러저러해서 저희가 이러저러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야학을 하는데, 저어기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찾아오고, 네팔 어린이 돕기 운동을 하는 네팔 청년도 찾아오고, '저희는 무슨무슨 본부 동아리인데요, 그런데요, 지도교수를 못 구하면 동아리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이 등록 마감일인데요, 아직도 지도교수를 못 구했으니 선생님께서 좀 맡아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학생들도 곧잘 찾아왔다. 나는 이런 생활을 가능한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허실되는 시간이 적지 않았다. 나는 이 생활을 바꾸기로 했다. 그리고 도서관에 아주 작은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강의가 끝나면 바로 그곳으로 가서 『맹자』를 읽었다. 조교에게는 연구실에 불이 나거나, 절도범이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나의 뽀뽀 번호를 알려주었다. 강의 준비와 『맹자』 읽기로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봄철인데도 가을처럼 가슴이 풍성했다. 그러나 돌아보니 『맹자』를 천천히 충분히 반복하여 읽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아직도 『맹자』를 빨리 읽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아뽀! 나는 또 선생님 말씀을 잊고 진도를 나간 것이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해 여름 방학 중에 나는 하나의 실험을 했다. 우인 선생님께서 읽으셨던 그 속도로 『맹자』를 천독하려면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내 생애에 그것이 가능할

공부는 아무나 하나...

전경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명예교수



이 끝맺음을 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후회로 남아 있다.

나를 대학원생으로 ‘받아 주신’ 로버트 스펜서(Robert F. Spencer, 1917-1992) 교수는 부인께서 세인트폴에 있는 사회사업 기관에서 입양관계의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였고, 당시 그 기관은 주로 한국의 입양아를 미국의 가정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스펜서 교수는 당시 한국의 여공(女工)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서울에 있는 왕립학회(Royal Asiatic Society)의 출판부에서 단행본으로 *Yogong*이란 제목으로 출판했다. 전후의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천우신조로 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스펜서 교수는 알프레드 크로버(Alfred Kroeber) 교수의 마지막 제자였다. 항상 문화의 개념에 관해서 철저한 입장을 가지도록 요구하셨고, 나에게 부여되었던 첫 번째 과제는 ‘What is ethnography?’였다. 그만큼 인류학의 기본 개념과 방법의 기초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셨다. 그분은 석사과정을 뉴멕시코대학에서 했는데, 당시 미국 서남부 지역 푸에블로 인디언의 한 집단인 케레산(Keresan) 부족의 언어에 대한 논문을 썼고, 그 감사 표시로 추장으로부터 반지를 선물로 받고 항상 그것을 끼고 다니셨다. 후두암으로 말년에 고생을 하신 선생님께서 우리 부부의 비행기표를 보내주셨다. 눈에 파묻힌 한겨울 동안 세인트폴의 자택에서 일주일간 보낸 적이 있었다. 선생님께서 운명하신 직후 사모님으로부터 국제전화가 걸려 왔다. “Bod just passed away.” 선생님께서는 저세상으로 가시는 마지막 길에 나에게 선물을 남기셨다. 일주일쯤 뒤 국제소포로 반지가 도착했다. 케레산 추장

류학자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한 고민과 문제해결의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하면, 한국에서 인류학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면, 앞으로 한국인류학에서 만들어낸 자문화인류학이 세계인류학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서양으로부터 수입된 학문이 모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내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부분들이 잠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의 눈으로 본 인간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고, 인류학이란 학문의 기본 개념인 문화를 보는 기초적인 관점에 대한 제삼의 생각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문화가 거울이라는 클럭혼의 생각에는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그 개념을 적용하는 과정에 의심 없이 ‘원시사회’를 대상으로 설정했던 점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하다가 보니, ‘자문화(自文化)’부터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시작하게 된 우리의 대상은 무문자사회인 원시가 아니었다. 문자 사회의 특성이란 것이 인류문화의 커다란 특징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는 이상, 문자 사회의 인류학이 갖는 문제들에 대해서 깊은 천착이 없이는 결코 ‘나의 인류학’이 탄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빌즈(R. Beals)나 코탁(C. P. Kottak)이 인류학 개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결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문제가 문자 사회란 것이다. 그들의 교과서는 문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문자란 현상이 문화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세상은 이제 문자 없는 사회란 없다. 문자 사회의 인류학에 대한 인식론 확립이 ‘개론’을

집필하는 관건이 되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카더라’식과 ‘오포상’ 형의 글을 쓰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 짓만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인식을 상실한다. 나는 없고, 미개인만 가득한 ‘인류학 개론’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유네스코의 발주로 한국인의 해외 이민에 관한 연구과제가 출범했고, 나는 유학 시절에 포르투갈어를 조금 공부했다는 것을 배경으로 남미의 한국 이민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인류학자가 해외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해외 교포 연구라는 장르가 해외 연구의 발판이 되었음은 부인하지 못한다. 일 년간의 자료 수집 준비기간이 있었고, 1986년 3월부터 1987년 2월까지 1년간 남미로 출장을 나가는 것이 서울대학교 측과 유네스코 사이에 약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1986년 2월 느닷없이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는 교수 서명 사건이 있었다. 40여 명 가운데 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일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 출국을 포기하고 있는데, 얼마 후 교무처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본부의 4층으로 갔더니, ‘시말서’를 작성하면 출국을 허가한다는 얘기를 했다. 나는 거부했다. 그런데, 갑자기 7월 어느 날 유네스코의 김상균(외교학과 68학번) 과장으로부터 출국 준비를 서둘러 달라는 연락이 왔다. 얼떨결에 비행기에 올랐고 상파울루에 도착하여 이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매사가 이렇게 차분히 준비되는 과정을 허락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임기응변에 능하지 않으면 헤쳐나가기 힘든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세계1위 조선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삶과 학문

장창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풀 수 있었으니 참으로 고마운 은인이라고 하겠다. 수학 주관식 8문제 중 하나를 그렇게 해서 건졌으니, 시험장에서 처음 그 문제를 접했다면 단시간 내에 도저히 못 풀었을 것이고 합격은 물 건너갔을 것이다. 정작 문제집을 나에게 빌려준 그 친구는 나와 같이 서울 공대에 응시했으나 실패하고 후기대로 진학했다.

입시 날짜가 점점 다가왔지만 서울에 올라갈 차비와 하숙비도 없는 상태로 안타깝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을 때 세 번째 은인이 나타났다. 부친이 대리점을 하다가 망하여 사업을 접었지만 미싱 머리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사러 온 사람이 나에게 고마운 은인이 되었다. 미싱을 판 돈으로 차비와 하숙비를 겨우 마련하여 상경했다. 1년 전에 머물렀던 공릉동의 민박집에 다시 투숙하고 입학시험을 쳤는데 합격했으니, 미싱을 산 그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나도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내 인생 고비고비마다 돕는 이들이 나타나 일을 성사시켜 주었으니 한 분 한 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다.

한 해 재수할 동안은 다음 해 입시에 실수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니 늘 불안한 마음이 있어 편하지 못했다. 그래서 재수를 하면 꼭 늙는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마음고생 탓이리라. 재수한 후 지원할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희귀한 전공 분야에서 1인자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재수하던 그해에 대한조선공사가 타이완에서 어선을 여러 척 수주한 것에도 고무되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친숙했던 바다와 배에 관한 선호도 있어서 세계 최고의 선박을 설계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서울대 조선항공공학과를 1지망으로

지원하여 드디어 합격했다.

3. 대학 시절

1) 한 학기 마치고 휴학하다

내가 꿈에도 그리던 서울 공대에 입학했으나, 1학년 때는 학과 전공별로 강의를 하지 않고 전공을 섞어 여러 개 반으로 나누어 고교 학급처럼 운영하여 학생 서로 간 유대감이나 친밀감도 없고 이질감이 많았다. 나는 재수로 마음고생을 많이 한 후 입학한 탓인지 기대를 많이 했던 만큼 대학 생활이 매우 실망스럽고 재미가 없었다. 학업에 대한 의욕이 없고 허무주의 사상에 젖어 전공서적보다는 니체나 카뮈를 즐겨 읽었다.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고려대 앞 종암동에서 하숙했는데, 고대 국문과를 다니는 고향 친구인 룸메이트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다. 그는 결국 허무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재학 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학업성적도 당연히 나빠지고 경쟁에서 밀리니 소위 콤플렉스(Inferiority Complex)가 생겨, 나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다. 집에서 어렵게 입학등록금은 마련해 주었으나, 그 이후는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형편이라 입학 후 아르바이트(가정교사)를 구했지만 시골에서 갓 올라오고 보니 지인을 통한 소개도 받을 수 없어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신문에 조그만 광고를 내고 하숙집 전화 번호로 연락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려서 겨우 아르바이트 한 자리를 얻어 하숙비는 간신히 해결했다. 그러나 2학기 등록금을

나는 대부분의 산적화물선의 침몰사고가 선측구조의 강도가 부족하여 발생한 점에 착안하여 1993년 이중 선각(Double Side Skin) 산적화물선을 건조할 것을 세계 최초로 제안하고 구조해석 및 설계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중 선각으로 인한 선체 중량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선주들의 기피 사항이 되어 난관에 봉착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선에 비해 선체 중량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물 산적화물선의 횡단면 구조를 변단면 효과를 고려한 강체부를 갖는 특수보요소로 모델링함으로써 자유도를 최소화하고, 기존의 유한요소해석 코드보다 계산속도가 1,000배 정도 빠른 동 연구실에서 개발한 효율적인 구조해석법인 일반화경사처짐법(GSDM)을 적용하여 1997년 세계 최초로 실물 이중 선각 산적화물선의 최적구조설계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으로 전산기 내에서 100여 케이스의 구조해석 및 설계를 수행하여 최적설계치수를 계산해 내어 중앙횡단면 도면과 선급제출용 계산서까지 출력하는데 1~2일 내에 수행함으로써 설계속도를 300~400배 이상 올릴 수 있음을 입증했다.

동 연구의 결과 선체 중량은 불과 1~2% 증가에 그치면서도 선체 구조 안전성은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침몰사고의 염려가 전혀 없는 산적화물선을 설계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종래 단일 선각선(Single Side Skin Ship)에 비해 이중 선각선(Double Side Skin Ship)은 화물창 내에 늑골(Frame)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하역 시간이 10~25%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고 조사 발표된 바 있다.

나는 세계를 선도하는 이중 선각 산적화물선의 최적 설계도를 영국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발표회의(Proc. of International Con-

한국 교육재정학 확립

윤정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명예교수



대학 입시와 무관한 사범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되었다. 학교 교육의 목표가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였으며, 교육학에서 말하는 전인교육을 지향했다.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사범학교로 진학했지만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사범학교 교육이 점차 몸에 익숙해지면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특히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교육심리학과 교육 방법 과목은 상당히 재미가 있었으며, 이 과목을 담당한 선생님 두 분이 마침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출신이었다. 그래서 특별활동을 교육반으로 선택했는데, 특활시간을 통해서 젊은 교육학자 중에 서명원 박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당시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주 희귀한 때라서 우리나라 전체로 보아도 몇 명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여하튼 교육학 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교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처음 이름으로 알게 된 박사가 서명원 교수였다.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어떻게 해야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서울대학교에 가면 이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겠구나.’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서 교수의 뒤를 쫓아서 대학에 가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외국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면 참으로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학문을 흠모하게 되었다.

화곡(華谷) 서명원 선생은 이미 2006년에 고인이 되셨지만 나와 의 인연의 끈은 상당히 길고도 단단했다. 선생은 1953년에 조지피바디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대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서울대 교무처장과 부총장,

IV. 학문의 길로 진입: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 교육행정 전공

사범대학에서는 1953년부터 교육학부제를 도입해 교육과, 교육심리과, 교육행정과를 설치 운영해 왔다. 5.16 군사정권에서 사대 폐지론이 대두되면서 교육학부의 교육심리과와 교육행정과가 폐지되고 교육학과만 존치되었다. 대신에 교육대학원이 신설되어 교육행정, 교육심리, 초등교육, 교육과정 전공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내가 1962년에 대학에 입학할 때는 교육학과로 입학했으며, 2학년 위로는 교육행정과, 교육심리과, 교육과가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었다. 내가 교육대학원을 입학하면서 교육행정 전공을 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학과 과대표를 하면서 선배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었는데, 세 개 과 중에서 교육행정과 선배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교육학부를 선도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둘째는 교육행정학을 전공하면 졸업 후에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장학관이나 행정관리로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다.

군 제대 후, 대학원 등록을 하고 공부할 자리를 찾던 중 교육심리연구실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곳의 책상을 하나 얻어서 공부할 수 있었다.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주로 연구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학기 중간쯤에 J 교수님이 교육 관련 출판사로부터 검사지 개정을 의뢰받았다며 지능검사, 인성 검사를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하자고 하셨다. 각종 검사지는 일

4. 맞은편 기숙사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유학을 떠난다는 기쁨 때문에, 뜻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김포공항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도 아무렇지 않게 쉽게 헤어졌는데 공부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원어민(native speaker)의 강의를 처음 듣는데 처음부터 강의 내용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는가? 열심히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강의를 듣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서울에서 헤매고 있어서 깜짝 놀라 다시 주의를 집중하다 보면 또다시 정신이 고국의 하늘 아래서 우왕좌왕하기 일쑤였다. 이런 현상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열심히 고민하다가 대학원 기숙사 맞은편에 있는 학부 학생 기숙사의 모든 방에 불이 꺼질 때까지 공부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밤을 훌쩍 새우며 공부한 날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새벽 두세 시가 되면 대부분 방에 불이 꺼지다가 하나둘 새롭게 불이 켜지는 방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초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 모든 방이 일시에 소등되는 날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전부 소등될 때까지에서 5개 방 이하가 될 때까지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으므로 공부하는 패턴을 변경해 저녁 식사 후에 연구실에 가서 공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범대학 내에 있는 교육연구소의 소장은 내 지도교수인 윌리엄 맥클루어 박사(Dr. William P. McLure)가 거의 20여 년간을 맡고 있었으며, 주요 연구 과제는 교육재정 배분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 연구소에는 나를 포함해 미국 학생 4-5명이 RA

구도의 여정에서 만난 프루스트

이형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명예교수



에, 얼마 아니 되는 농토에 의지하여 힘겹게 살림을 꾸려가시는 어머니에게 작으나마 도움 드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하는 즉시 교편을 잡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토록 소박한 뜻을 품고 대학에 진학했건만, 모든 것을 상실한 듯한 감회로 인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없었고, 날로 무겁게 나를 짓눌러 오는 것은 깊은 허무감뿐이었다. 게다가 수강하던 과목들 중 어느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어느 날 <초급 프랑스어> 시간에, 교정에 핀 꽃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그 유치해 보이는 문장들을 선생님께서 나 같은 멍청이에게 열심히 설명하신다는 사실이 송구스러워, 또한 아무 감흥 없이 앉아 있는 나 자신이 하도 불쌍하여, 어느 순간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드렸다. “선생님, 저 꽃들이 해마다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그 변함없는 노고가, 유유창천의 지극하심과 같거나와, 도대체 만물이 결국 무엇을 위하여 존각도 쉬지 않고 분주히 움직이니까?” 모든 것이 허망하고 못 인간사가 부질없다는 감회에 젖어, 인생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이나고 여쭙는, 나름대로 한껏 완곡하게 정리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교실이 별안간 조용해졌고, 노하신 듯한 선생님이 나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강의실에서 나가라고 하셨다.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서 복도로 나와 층계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층계참에 이르렀을 때 선생님이 복도에 나오셔서, 다시 올라오라고 하셨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일제히 웃으며 일러주기를, 그 이상한 질문을 하기 직전, 선생님께서 뉘 나간 듯한 나를 몇 번 바라보시다가, 교

과서에 있는 짧은 문장 하나를 우리말로 번역해 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 ‘기괴하고 장엄한’ 질문을 읊어대더라는 것이다.

전공이었던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도 그러했으니 다른 교양 과목 수업 시간에야 오죽했겠는가! 그나마 <철학 개론> 강의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경청했다. 하지만, 강의를 단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귀에 들려오는 것은 소위 철학자들이라 하는 낯선 이름 들뿐이었고, 그들의 사상적 요체가 무엇인지는 잡히는 것이 전혀 없었다. 철학자들 중의 철학자인 것처럼 소개하시던 플라톤에 — 선생님께서는 ‘플레이토’라 발음하셨다 —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의 사상적 골격은 포착되지 않았다. 그의 핵심적 사상이라고 하시면서 ‘이デア’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선생님께서는 ‘이デア’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두 팔꿈치를 교탁 위에 올려놓으시면서 “아! 이デア!”라는 감탄사를 쏟아 놓으시곤 했다. 광신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던 그 감동적인 열정에도 불구하고, ‘이デア’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그 시절에 유행하던 ‘실존주의’라는 말도, 썬르트르 및 하이데거라는 이름들과 함께 자주 들렸다. ‘실존(實存)이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렇다면 가존(假存)이나 위존(僞存) 혹은 허존(虛存)이란 것들도 있던 말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를 엄습한 짜증 섞인 감회였다. 요컨대, ‘실존’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작한 후에야 그곳을 떠났다.

다음 날 오후 늦게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산타 마리아 델 그라체 수도원에 있다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케나(최후의 만찬)」가 뇌리에 떠올랐으나, 주머니 형편이 여의치 않아 프랑스행 기차에 올랐다. 그리고 기차 안에서 더욱 또렷해진 사념은, 프루스트의 소설 속에 언급된 예술품들을 찾아 쏘다니는 것이 부질없는 노고일 듯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는 대신 그 소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첩경일 것 같았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소정의 학위과정에 등록하여 전문가의 지도하에 프루스트의 작품을 연구해야겠는데, 프루스트 전문 교수들은 거의 모두 파리에 있는 대학들에 재직하고 있었다. 결국, 이탈리아에서 돌아오는 도중 기차 안에서 파리대학으로 학적을 옮기기로 결심했고, 두 달 후 파리로 떠났다.

VII. 신화 속으로

파리에 도착하여, 나에게 석사 학위 논문 지도 승낙서를 써 주시어 내가 학적을 옮길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미셸 레몽(M. Raimond) 교수님을 찾아뵈었다. 그리고 프루스트의 어떤 주제를 연구하고 싶으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프루스트가 작품에 개진한 '시간'의 개념을 명료하게 포착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조금 신경질적인 어조로, 구태여 규명해야 할 '시간의 개념'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셨다. 그리하여, 프루스트의 소설 제목에 언

급된 ‘잃어버린 시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대꾸했다. 그 순간 선생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소설의 제2편(『피어나는 소녀들』)에서 발견되는 주요 일화들의 서술적 특징을 연구해 보겠느냐고 제안하셨고, 나는 얼떨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돌이켜 보거니와, 당시(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프루스트의 소설 제목이 ‘잃어버린 시간’으로 번역되었던지라, 그 작품을 대강이나마 읽어나 역시 그러한 번역을 추호도 의심치 않아, ‘시간’이란 것이 상실될 수도 있고 되찾을 수도 있는 어떤 실체일 것이라 상상했고, 특히 플라톤이 대화편 『티마이오스, 혹은 자연에 대하여』 속에 개진해 놓은 ‘시간’에 대한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읽은 후에는, 그것이 어떤 신비한 본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내가 작품의 마지막 편(『되찾은 시절』)에 있는 ‘잃어버린 시절, 즉 옛날들’이라는 프루스트의 부연 설명에 유의했다면, 그 어처구니없는 오해도 없었을 것이고, 플라톤을 비롯한 몇몇 철학자들의 시간론에 그토록 오랫동안 휘둘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하튼,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몇몇 참고서에 의지하여, 프루스트의 서술적 특징을 분석한 초라한 논문을 별 감흥 없이 꾸려 두 해 후에 제출했다.

작품의 주인공이 느낀 희열과 그 순간 그를 엄습한 초월감의 정체 혹은 본질을 밝히는 것이 내가 그 작품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었지만, 나의 그러한 뜻을 레몽 교수님에게는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분의 강의가 소설의 제반 형태적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었던지라, 어찌 보면 형이상학적이거나 비교

학문으로서의 민법학을 위하여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놀라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리하여 1978년 봄에 후암동의 선생님
덕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뵈
게 된 곽 선생님은 학생들이 흔히 말하던 바와는 아주 다르게 저
를 매우 따뜻하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저를 2층 서재로 데리고
가서는 얼마 전에 독일에서 발간되었다는 독일민법에 대한 『슈
타우딩어(Staudinger) 주해서』를 꺼내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2) 그 후로 매해 정초에 후암동으로 세배를 갔습니다. 그리
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1979년 11월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자, 새해부터는 「민사판례연구회」에 들어오라고 말
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1981년 5월의 그 연구회 제41회 모
임에서 “변제공탁에 있어서의 공탁금회수권에 대한 압류 및 전
부명령의 허부”라는 이름의 발표를 처음으로 하였습니다.³⁷

IV. 법원에서, 그리고 독일 유학

1. 법원에 있으면서

(1) 앞서 말한 대로 1979년 가을에 판사가 되어 기록을 보고 판
결을 쓰면서, 일본의 실무와 이론의 압도적 영향을 실감하였습

37 후에 민사판례연구, 제4집(1982), 221면 이하에 수록되었습니다.

니다.

일본의 법 관련 문헌자료를 — 무단으로 — 복사·제본하여 파는 사람이 서소문의 법원 건물을 제집처럼 들락거렸습니다. 『주석민법』 등의 주해서나 『민사소송법강좌』 등의 시리즈물을 비롯하여 각종의 실무 관련 일본서적이 팔렸습니다(요즈음도 도서관에 가 보면, 그 구석에서 이런 복사판 일본 법에 관한 책 더미를 발견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덕수궁 옆의 서울법원 신관 제1청사 8층에 찾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소장자료는 대부분이 『주리스트』, 『법률시보』, 『판례타임즈』 등 일본의 법률 전문 잡지, 일본의 대학에서 나온 정기간행물들, 그리고 일본의 교과서·해설서 종류였습니다. 조금 걸어서 대법원의 도서관에 가 보면, 일제 때의 ‘조선고등법원’ 도장이 찍힌 1940년 이전의 독일자료들도 준비하기는 했습니다(사법연수생 시절 사법연수원이 있던 위 신관 제2청사(제2신관)의 8층에는 한국법학원도 같이 있었는데, 그곳의 도서관에는 「중추원도서관中樞院圖書印」이라는 도장이 선명한 독일 및 일본의 책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일제 때의 중추원에 있던 책들이 분명하고, 지금으로서는도 틀림없이 ‘귀중본’이라고 할 것들인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대법원 도서관에 새로 들어오는 일본 법률 잡지의 표지 윗부분 구석에 하나같이 작은 결재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것은 당시의 이영섭 대법원장이 ‘보았다’는 표시로 찍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 민법이론으로서도, 현행의 우리 법에 대한 설명으로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3. 법 공부

(1) 학교에 있던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저는 『민법연구』 도합 9권에 담긴 논문들을 썼고, 『민법주해』에서 신의칙, 물권적 청구권(제201조 내지 제203조 포함), 채무불이행, 부당이득 등에 관하여 긴 주석을 붙였으며(모두 합하면 1,400면이 넘는 것으로, 40대의 많은 부분은 여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외국의 법학서적 몇 권 및 법전을 번역·출간했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여러 선생님·선배님이 하신 것처럼 이른바 체계서라는 것을 지어내지 못했고, 박사학위 논문조차 단행본으로 출간되지 못하였습니다.

(2) 법 공부는 저에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공부의 방법이 제가 몸담게 된 학계에 잘 정립되어 있다고, 학문의 ‘전통’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⁶⁴ 우리 법학교수가 하는 일은 재판

64 법을 공부하신 분이려면 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민법학계의 제1세대를 대표하는 김증한 선생님은 1985년 11월에 그의 40년에 가까운 서울대학교 교수 생활을 마감하는 고별강연을 「한국 민법학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 강연은 “우선 **한국에 민법학이 있는가가 의문이다**. 그렇지만 민법 담당 교수들이 하는 일을 일단 민법학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라는 실로 충격적인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갓 전임강사 발령을 받은 신참으로서, 강연 현장에서 이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강연의 내용은 그 후 김증한, 「한국 민법학의 진로」, 안이준 편저, 한국법학의 증언: 고 김증한 교수 유고집(1989),

을, 또 재판 일은 법학교수들의 작업을 서로 외면해서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듯했습니다. 일본의 실무태도나 해석론이, 또는 오로지 일본의 실무태도나 해석론만이 법원에서 존중되지 않나 하고 얼핏 느껴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학에서는 그것은 오히려 타부처럼 여겨지고 있었고, 오로지 독일의 문헌자료가, 그것도 최근 것만이 인용 또는 전거典據에 값하는 것으로 암묵간에 요해되고 있다고 하는 인상조차 없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일본이든 독일이든 또 그 어디든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문화적 식민주의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의 법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 다시 앞서 본 칸트의 글에서 인용하자면 — “타인[여기서는 ‘다른 나라의 법학자들’이라고 해야겠습니다]의 지도가 없어도 자신의 이성을 과

145면 이하에 수록되었습니다(원래는 서울대학교 법학 제26권 2·3호(1985), 1면 이하). 평생을 민법학 연구에 바친 사람으로 하여금 과연 자신의 나라에 그 학문이 있는지까지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이였을까요? 그 강연에서 선생님은 더 나아가 보다 일반적으로 “[한국민법학은] 일본법학의 망령[‘일본 것’이라고 하면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경향] 또는 ‘일본 것이니까 따라야 한다는, 말하자면 문화적 식민지사상’이라고도 하십니다]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 일본법학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의 독자적 이론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독일법학이 가장 손쉬운 의거처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위 유고집 150면, 153면).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독자적인 이론의 개척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가장 손쉬운 의거처’로서 다른 어느 한 나라의 법학을 드는 것 사이에는 별다른 어긋남이 없을까, 그것은 과연 ‘문화적 식민지사상’과 크게 다른 것일까 하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